

「璿源系譜紀略」正祖 7年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unwon-Gyebo-Giryak*, the edition of King Jeongngjo's 7th year

안 미 경(Ahn, Mi-Kyung)**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형태적 특징 |
| 2. 정조 3년본 이전의 「璿源系譜紀略」 간인과정 | 5. 내용적 특징 |
| 3. 정조 7년본의 간인과정 | 6. 맺음말 |
| | <참고문헌> |

< 초 록 >

본 연구의 목적은 「선원계보기략」 정조 7년본을 정조 3년본과 비교하여 그 형태적 특징과 내용적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선원계보기략」 정조 7년본은 편찬체제 상 새로운 변화를 보여 주는 책이다. 정조 7년본의 편찬체제는 차후 전범이 되어 각 왕대에 걸쳐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면서 1933년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형태적 특징에서 각 권의 장수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 것은 어저서문, 목록, 총서, 범례가 정조 7년에 와서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또 책의 판식에서 각 권의 장수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반곽의 크기에서도 역시 차이가 있었고 이러한 차이는 해당 부분의 추가, 수정, 삭제로 인해 목관을 새로 판각하여 편입하였기 때문이다. 내용적 특징은 정조의 생부인 장헌세자에 관한 기록이 눈에 띈다. 정조 7년본에는 ‘사도’를 빼버리고 ‘장헌세자’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과 진종을 승통세자로 賜號하고 정조 즉위에 영조의 遺敎로 왕으로 추존한 점이 다. 또 진종의 대를 이은 것은 정조라고 하고 그 아래 주석에 정조를 혜경궁 홍씨 소생이라고 하여 진종대왕과 혜경궁 홍씨를 애매모호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 정조 7년본에서는 이를 주요한 이슈로 삼아 기록을 바로 잡았음이 그 특징이다.

要語 : 「선원계보기략」, 정조 7년, 사도세자, 혜경궁홍씨

* 이 논문은 2006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6-322-A00014).

** 대림대학 문헌정보과 겸임교수(chungahn@hanafos.com)

접수일: 2008년 9월 5일 최초심사일: 2008년 9월 10일 심사완료일: 2008년 9월 19일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form and content of *Sunwon-Gyebo-Giryak*, the edition of King Jeongjo's 7th year, when compared with the edition of King Jeongjo's 3rd year. The 7th year edition of *Sunwon-Gyebo-Giryak* adopted a new method of compilation which ever since became the standard for royal scripts and was modified, supplemented in each dynasty and used until 1933.

Noticeable differences in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was due to the addition of Preface by the King, Table of Contents, General Introduction, and Introductory Remarks in the 7th year edition. Also, the difference in the number of pages in each chapter was due to the variance in the size of *Bangwak* later inserted because of the addition, correction, or omission of texts on woodblocks.

In the content, some records regarding Jangheon Seja, the father of King Jeongjo, are especially noticeable. In the 7th year edition, it was recorded that he was called Jangheon-Seja instead 'Sado', and Jinjong was granted with the title of Seungdong Seja and then posthumously enthroned with the order of the deceased King Yeongjo upon the actual enthronement of King Jeongjo. Moreover, there was a part that King Jinjong and Hyegyeong-Goong-Hongssi were ambiguously recorded by describing that King Jeongjo succeeded King Jinjong and he was son of Hyegyeong-Goong-Hongssi in the annotation. This record was corrected as an important issue in the 7th year edition.

Key words : *Sunwon-Gyebo-Giryak*, Jeongjo 7th year, Sado-Seja,
Hyegyeong-Goong-Hongssi

1. 머리말

조선시대 왕실은 가문이라는 사적인 성격과 국가를 대표하는 공적인 성격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왕실은 특별한 대우를 받았고, 그 특별한 대우 중의 하나가 왕실의 족보 편찬이었다.

왕실족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적으로 관리하는 왕의 친인척에 관한 인적 사항을 조사하여 기록한 것이다. 이러한 왕실족보 가운데 「璿源系譜紀略」은 1679년(숙종 5)부터 간인되기 시작하였다. 왕실의 여러 慶弔事로 인한 변경 사항이나 새로운 기재 사항이 생길 때마다 重校와 補刊을 거듭하면서 1933년까지 간인되었다. 대개 왕의 卽位·尊號·徽號·謚號·陵號·妃嬪의 책봉·왕세자 왕세손의 탄생 등이 대표적인 追記사항이었다. 이러한 추기 사항은 조선 왕실의 변동사항을 설명해 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들이며 이를 통해 왕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璿源系譜紀略」은 왕족의 계통 및 각 왕과 그의 九族이 모두 수록되어 있는 방대한 인명록으로 조선 역대 왕들에 관한 기본적인 인물정보를 담고 있음과 동시에 왕권을 중심으로 한 친인척 인물들의 일차적인 정보원으로서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璿源系譜紀略」 정조 7년본은 편집체제 상 새로운 변화를 보여 주는 책이다. 바로 앞에 간인된 정조 3년본의 편집체제가 目錄, 凡例, 璿源先系, 列聖繼序之圖, 璿源世系, 子孫錄, 跋文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해 정조 7년본은 제일 먼저 正祖의 御製를 붙인 다음, 정조 3년본 이전의 凡例를 정리하여 10개의 항목으로 고정시켰다. 그리고 중교와 보완이 이루어 질 때마다 범례에 기재했던 모든 사실을 總敍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또 명실 공히 八高祖圖를 璿源世系 뒤에 붙여 종합적인 족보의 구실을 하게 하였다.

정조 7년본부터 「璿源系譜紀略」 편집체제는 御製序文, 目錄, 總敍, 凡例, 璿源先系, 列聖繼序之圖, 璿源世系, 八高祖圖, 子孫錄, 跋文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순서는 典範이 되어 이후 각 왕대에 걸쳐 중교와 보완을 거듭하는 가운데

에서도 1933년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典範이 된 정조 7년본을 바로 이전본인 정조 3년본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정조 7년본이 지닌 형태적, 내용적 특징을 살펴보려 한다.

2. 정조 3년본 이전의 「璿源系譜紀略」 간인과정

「璿源系譜紀略」이 최초로 간인된 것은 숙종 5년(1679)이다. 초고본은 郎原君 李侃(1640~1699)이 숙종 5년(1679)에 숙종에게 올린 「璿源譜略」으로¹⁾ 현재 장서각에 유일본으로 전래하고 있다.

「璿源譜略」의 저자인 郎原君 李侃은 仁興君 瑛의 둘째 아들이므로 인조 18년(1640)에 태어나서 숙종 25년(1699)에 타계하였다. 그의 부친인 仁興君 瑛은 초서와 예서에 정통하였다. 仁興君 瑛의 서법과 정통한 실력은 李侃에게로 이어져 숙종 5년에 「선원계보기략」을 처음으로 만들어 올릴 수 있었던 지간의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²⁾

郎原君 李侃은 「璿源譜略」을 저술한 이유로 그가 평소에 世系와 本支를 잘 알지 못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던 차에 譜를 만들어 자신의 비망록으로 쓰려고 했던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³⁾ 이로 미루어 후일 왕권의 강화와 권위를 제고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우선 「선원록」만으로 世系와 本支를 알기에는 부족하므로 이를 체계화하여 備忘과 考閱에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郎原君이 숙종에게 上疏를 올려 「璿源譜略」의 간인을 주장하자 숙종은 「璿源譜略」이 왕실의 계통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고 또 보기에 편리하나 오류와 누락이 있는 곳이 있으니 이를 교정하여 宗班에게 頒賜하고 1부는 강화도에 보관

1) 「璿源譜略」 장서각(K2-1049)

2) 朗善君 李侃에 관해서는 黃晶淵, “朗善君 李侃의 書畫 收藏과 編纂”, 『藏書閣』, 제9집(2003. 6), 5-44. 참고할 것.

3) 「璿源譜略開刊儀軌」 장서각(K2-3837) 己未(1679) 2월 14일

하여 영구히 보존하도록 하였다.⁴⁾

숙종은 「璿源譜略」의 校正과 刊印의 책임을 종부사에서 맡도록 하고 교정을 담당할 宗班으로 昌城君 李佖과 檜原君 李倫을 천거하였다. 刊役의 책임을 종부사로 한 것은 璿源譜略 에 수록된 列聖의 徽號 때문이었다. 그러나 간행에 필요한 木板은 교서관에서 담당하게 하고, 필요한 물자와 인력은 호조에서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 필요하면 成均館의 刻手도 동원하도록 하였다.⁵⁾ 발문은 숙종의 전교에 따라 대제학 金錫胄가 찬하도록 하였다.⁶⁾ 마침내 숙종 5년(1679) 璿源系譜紀略이 간인되었다. 이렇게 간인된 「璿源系譜紀略」은 초고본인 「璿源譜略」에 비해 교정과 보완이 대폭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우선 「璿源系譜紀略」이 2권 1책으로 총 100장으로 되어 있지만 「璿源譜略」은 총 44장에 불과하였다. 책의 편집체재도 「璿源譜略」은 凡例, 四王以上世系, 列聖繼序之圖, 列聖世系, 譜圖上·譜圖下순으로 되어 있지만 「璿源系譜紀略」은 凡例, 璿源系譜, 列聖繼序之圖, 列聖世系, 譜圖上·下순으로 되어 있다. 두 판본을 비교해 보면 크게 교정되고 보완되었음을 알 수 있다.⁷⁾

그러나 璿源系譜紀略이 종반과 신료들에게 반사되자 金宗瑞는 孝宗의 비인 仁宣王后의 誕降日과 本貫, 孝宗의 冊封月, 駙馬父名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면서 또 다시 수정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것은 결국 숙종의 동의를 얻어 숙종 7년(1681) 9월에 다시 교정과 보완이 이루어졌다. 역시 주관부서는 종부사가 맡기로 하고 朗原君 李侃이 改刊을 주관하도록 하였다. 숙종 5년(1679)본에 수록된 凡例는 9개 항목인데 여기에 2개 항목이 더 늘어났고, 璿源系譜를 璿源先系로 바꾸었다. 그리고 列聖世系도 璿源世系로 바꾸었다.

숙종 7년(1681)이후 편집 체제와 수록대상이 다시 바뀌는 것은 숙종 45년(1719)이다. 종부사에서 숙종 26년(1700) 3권 2책으로 증보된 이후로 내외 支孫으로 입록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등록을 요청하자⁸⁾ 내외 자손을 등재하기 위한

4) 「璿源譜略開刊儀軌」 장서각(K2-3837) 己未(1679) 2월14일, 2월15일

5) 「璿源譜略開刊儀軌」 장서각(K2-3837) 己未(1679) 6월22일

6) 「璿源譜略開刊儀軌」 장서각(K2-3837) 己未(1679) 4월초8일

7) 안미경, “藏書閣 所藏 『璿源系譜紀略』의 書誌的인 研究”, 『藏書閣』, 제17집(2007, 6), 9.

수정은 그 해 간행된 「璿源系譜紀略」에 선조조의 자손은 姓孫 10대손까지, 外孫 7 대까지 수록한다는 내용이 범례에 추가되었다.⁹⁾ 이것은 代數에 제한이 없었던 宣祖朝 자손의 수록 범위가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영조 36년(1760)이었다. 편찬 체제 상 변화는 본문의 한 면을 5단에서 6단으로 늘려 맨 위의 단에는 왕을 기재하였다. 이것은 역대 왕의 묘호를 쓰기 위한 것으로 내용상 5단과 별반의 차이는 없었다. 그리고 본문 書眉에 千字文 순서대로 기재되던 것이 생략되었다. 수록대상의 변화는 영조 36년(1760) 이전에는 중종부터의 자손록이 기재되었던 것이 영조 36년(1760) 이후부터는 태조부터 내외 자손록 4대, 외손 자손록 3대까지 기재하도록 하였다.¹⁰⁾ 이것은 「璿源系譜紀略」이 家族譜도 아니면서 계속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서명에서의 “紀略”은 대략을 적는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었다.

정조대에 와서는 영조대에 비해 「璿源系譜紀略」의 중교 보간의 빈도가 눈에 띄게 줄었다. 이와 함께 그 대상 인물도 크게 줄었다. 대상 인물의 변화 가운데 특히 왕의 아래 세대 인물들이나 전대 왕과 왕비에 대한 기록이 크게 줄어든 것에 반해 자신의 생부인 景慕宮(思悼世子)과 惠慶宮에 대한 기록 등이 눈에 띈다. 실제 정조는 中草本을 御覽하면서¹¹⁾ 璿源系譜紀略 世系에 大王은 大王이라 칭하고, 王后는 妃라 칭하지 않은 것과 惠慶宮의 爵號가 실려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景慕宮의 內外子女 중에 빠진 자가 많이 있고 縣主를 낳은 어머니를 某氏라고만 칭하고 爵名을 쓰지 않음도 아울러 지적하였다. 실제 정조 3년본을 살펴보면 景慕宮과 惠慶宮의 기록 이외에도 정조 3년본 이전의 누락된 사실들을 챙겨서 침묵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정조 3년본의 범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른 시기에 간인된 것보다 범례의 항목수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려 100개의 항목이나 된다. 여기에는 정조 3년본의 중교·보간의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¹²⁾

8) 「璿源譜略校正廳儀軌」, 규장각(奎14014) 己亥(1719) 4월 26일

9) 「璿源系譜紀略」, 장서각(K2-980B) 凡例

10) 「承政院日記」, 영조32년 9월 28일

11) 「璿源譜略校正廳儀軌」, 규장각(奎14086) 12월 17일

첫 번째, 영조 48년(1772) 본에 누락된 顯宗의 追上尊號, 明聖王后·當宁(英祖)·貞聖王后의 加上尊號, 王妃의 上尊號를 수록하였다.

두 번째, 영조 52년(1776) 본에 누락된 肅宗·仁敬王后·仁顯王后·仁元王后의 追上尊號, 儲慶宮·毓祥宮의 追上尊號, 當宁(英祖)·貞聖王后·王妃의 加上尊號 수록하였다.

세 번째, 정조 1년(1777) 본에 누락된 英宗의 諡號·陵號·春秋·在位 年紀의 수록과 繼妃를 王大妃로 수정하여 수록한 것, 眞宗의 追崇諡號·陵號의 수록, 孝順王后의 追崇諡號·陵號 수록한 것, 景慕宮의 諡號·陵園號 수록한 것, 惠慶宮의 進號 수록, 當宁(정조)即位年月日·宮號·門名 등을 수록하였다.

네 번째, 英宗 辟容 11本の 奉安殿號·宮號·年條와 貞聖王后·王大妃 加上尊號, 延祐宮 上諡와 惠慶宮의 進號, 景慕宮의 世系 등은 凡例를 따로 편성하여 수록하였다.

다섯 번째, 惠慶宮 誕降·冊封年紀·宮號·進號를 침록하였다.

여섯 번째, 淑昌宮의 誕降·冊封·薨逝年紀·諡號·宮號·園號를 當宁朝 卷에 수록하였다.

이러한 정조 3년 본은 12월 19일 「璿源系譜紀略」을 인출하고 장황까지 마친 뒤인¹³⁾ 12월 24일에 간인에 참여한 교정청 관원들에게 시상을 하였다.¹⁴⁾ 교정제조 恩彦君 衿과 제조겸형조판서 蔡濟恭에게는 半熟馬 각 1필 사급하고, 발문제술관 대제학 徐命膺과 서사관 安川君 燿에게는 각 熟馬 1필 사급하였다. 그리고 校正을 담당한 西溪君 燿, 花陽君 樸, 都廳正 趙尙鎮에게는 나란히 加資하고 主簿 俞任柱, 直長 南履範, 監役 李觀秀에게는 승차하였으며 寫字官인 彭得大, 洪慶運에게 각 熟馬 1필 사급하고 員役 工匠 등은 해당 조에 명하여 쌀과 포을 나누어 주어 시상하였다.

12) 「璿源系譜紀略」 규장각(奎8625) 凡例

13) 「璿源譜略校正廳儀軌」 규장각(奎14086) 12월 19일

14) 「璿源譜略校正廳儀軌」 규장각(奎14086) 12월 29일

3. 정조 7년본의 간인과정

정조 7년본의 수정을 먼저 제안한 사람은 直提學 徐有防이다. 정조의 御眞摹寫 년월을 첨입하는 일을 종부시에서 하도록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¹⁵⁾ 이에 수정은 교정청에서 담당하였으며 편차를 정하는 일은 예에 따라 구관당상과 교정관이 담당하되 중반 중에 차출하도록 하였다.¹⁶⁾ 구관당상으로는 海溪君 燾와 安春君 滂이 추천되었고, 국조어첩 서서관에는 安川尹 燧가, 교정관에는 花陽君 權과 西淸君 焜이, 忠義衛加出에는 金宗敬,¹⁷⁾ 提調行左贊에는 李命植이 추천되었다.¹⁸⁾

이 일은 말은 종부시 제조 李命植은 본격적으로 편찬 작업에 착수하기 시작하였다. 정조 6년(1782) 12월 21일에 논의된 사항은¹⁹⁾ 왕원자를 입록하는 것은 改張時에 하고, 계유년(영조 29)의 예에 따라 원자의 휘자는 쓰지 않기로 하였다. 그리고 昭容·爵號·姓氏는 小註로써 침록하도록 하고, 「국조어첩」은 마땅히 수정하여 일체를 수록하도록 하였다. 또 御容과 模本은 아직 入錄하지 않았지만 지금 침록하기로 한다고 하였다. 발문은 李福源이 맡아서 작성하기로 하였다.

12월 22일에는²⁰⁾ 열조어첩의 大註 중 19조의 보감 편찬은 몇 건만 기록하여 올리고, 어첩 중 尙書에 수록한 것은 각기 玆호를 따라 수정하도록 할 것이 결정되었다. 또 자손 중 남자가 나이가 어려 아직 호를 정하지 않는 자, 이미 혼인한 여자, 어려서 혼인을 하지 않은 자 등은 일일이 방문하여 기록하게 하였다. 단, 어려서 아직 혼인하지 않은 자는 단지 ‘女’字만을 쓰게 하였다. 單子는 八道에서 모아 罪籍과 復官한 자는 각기 當朝의 처분에 따라 수정하여 기록하도록 하였다. 혹 계보 중 착오가 있는 곳은 일일이 수정하여 수록하도록 논의되었

15) 「璿源譜略修正儀軌」(奎14087) 壬寅(1782) 12월 18일

16) 「璿源譜略修正儀軌」(奎14087) 壬寅(1782) 12월 19일

17) 開國功臣 鷄林君 18代孫

18) 「璿源譜略修正儀軌」(奎14087) 壬寅(1782) 12월 20일

19) 「璿源譜略修正儀軌」(奎14087) 壬寅(1782) 12월 21일

20) 「璿源譜略修正儀軌」(奎14087) 壬寅(1782) 12월 22일

다. 실제 정조 7년본 권4 세종대왕 편에는 龜城君 浚의 복관사실이 수록되어 있다. 세종의 손자인 龜城君은 역적으로 몰려 귀양갔다가 죽었는데, 숙종 13년(1687)에 복관되었다.²¹⁾

한편 「팔고조도」와 「왕비세보」는 1벌 등사하여 어람한 후에 봉안하는 일이 근자에 들어 소홀하다고 하여 정조 7년본을 인쇄하여 올릴 때 「팔고조도」와 「왕비세보」도 1벌씩 精寫하여 함께 봉모당, 규장각, 사고에 봉안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어첩편과 계보권에 수정할 것이 많은 것은 나이 든 종반 가운데 李瀆을 교정당 상으로 삼아 일을 맡기게 하였다.

12월 23일에 주로 논의된 사항은²²⁾ 형조 판서 嚴璫이 수정을 제기한 내용이었다. 정조 3년본의 내용 중 진종대왕의 대를 이은 것은 “嗣 主上殿下[정조]” 그 아래 小註에 “惠慶宮 孝康 惠嬪洪氏誕生”이라 되어 있다. 嚴璫은 이 내용을 영조의 대를 이은 것은 진종이고, 진종의 대를 이은 것은 주상전하[정조]라 하고, 또 小註에 “惠慶宮誕生”이라 되어 있는 것은 진종과 혜경궁 사이에 정조가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매우 미안한 일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 부분을 “思悼莊獻世子 第二男 惠慶宮洪氏誕生 壬申某月某宮誕生”이라고 수정하면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嚴璫은 수록 내용 중 덕종의 御牒에서 명칭사용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수정을 제의하였다.²³⁾ 그는 기존 정조 3년본에 덕종을 성종이 계승한 것으로 쓰고 예종의 밑에는 성종이 계승한 것을 쓰지 않은 채 仁城大君과 齊安大君만 기록한 것은 큰 착오라고 하면서 지금 「璿源系譜紀略」(정조 7년본)을 수정할 때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영의정 서명선은 「璿源系譜紀略」에 繼序圖와 世系가 있는데, 繼序圖는 대통을 계승한 것을 중히 여기기 때문에 성종 대왕을 예종 대왕의 밑에다 쓴 것이고, 世系는 자손을 기록하기 때문에 성종 대왕을 덕종 대왕의 밑에다 쓴 것이라고 하여 사례가 각각 같지 않으니 가볍게 논의할 수 없다고 하였다.

21) 「조선왕조실록」 숙종13년 6월 5일

22) 「璿源譜略修正儀軌」 규장각(奎14087) 壬寅(1782) 12월 23일

23) 「璿源譜略修正儀軌」 규장각(奎14087) 癸卯(1783) 2월 19일

좌의정 이복원은 「璿源系譜紀略」의 凡例에 보통 ‘嗣’라고 일컬은 곳에는 ‘男’자와 ‘子’자의 의미가 아울러 있다고 하고 ‘男’이나 ‘子’라 하지 않고 ‘嗣’라고 하는 것은 사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에 정조는 시임대신에게 의논하라는 명을 내리자 李福源 등이 덕종의 御牒에 ‘男’자를 써야 한다고 하자 정조는 그대로 따랐다.²⁴⁾

御製序文의 초본이 완성된 것은 정조 7년(1783) 1월 16일이다. 도승지와 각신이 어제서문의 교정을 보고,²⁵⁾ 書寫는 兪彥鎬가 맡았다. 범례에 관한 사항은 李福源이 이전의 범례는 매우 복잡하므로 수정하자는 제의를 하자²⁶⁾ 기존 정조 3년본의 범례 100개의 항목을 대폭 줄여 10개의 항목으로 고정시켰다. 대신 차후 변동되는 모든 사항은 총서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범례 10항목은 「璿源系譜紀略」이 증보되는 1933년 본까지 그대로 준용되었다.

「璿源系譜紀略」 정조 7년본이 初草를 거쳐 中草의 수정을 마친 것은 정조 7년(1783) 2월 21일이었다. 이날 정조는 어람한 후 목관에 부쳐 간행을 할 것을 명하였다. 마침내 「璿源系譜紀略」이 완성되어 정조 7년(1783) 4월 8일 진상을 하였다. 이 날 정조는 편찬과 교정을 한 신하에게 차등 있게 상을 시상하였다. 어제서문 서사관인 규장각 제학 兪彥鎬에게는 품계를 올려 주고, 발문제술관의정부 좌의정 李福源에게는 廐馬 한 필을 面給하였다. 교정 당상 동지돈녕부사 李養, 찬수 감인 교정관 花陽君 李權, 西淸君 李燿에게는 모두 품계를 올려 주었다. 또 서사관 安川君 李燿에게는 熟馬 한 필을 하사하고, 구관당상 安春君 李滂, 海溪君 李燾에게는 각각 숙마 한 필을 면전에서 지급하였다. 제조 행 부사직 鄭一祥에게는 숙마 한 필을, 의정부 좌참찬 李命植에게는 반숙마 한 필을 하사하였다. 도청 중부시 정 金峙默에게는 품계를 올려 주었다.²⁷⁾

24) 「조선왕조실록」 정조7년 2월 19일

25) 「璿源譜略修正儀軌」 규장각(奎14087) 癸卯(1783) 1월 16일

26) 「승정원일기」 정조7년 1월 16일

27) 「조선왕조실록」 정조7년 4월 8일

4. 형태적 특징

본 연구의 대상인 「璿源系譜紀略」 정조 7년본을²⁸⁾ 검토하기 위하여 비교 대상으로 삼은 정조 3년본은 규장각 소장본이다.²⁹⁾ 장서각에는 정조 7년본은 없고, 정조 3년본만이 현전하고 있다.³⁰⁾ 그러나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정조 3년본을 실사해 보면 다른 시기에 간인된 판본들과 합하여 한길로 이루어 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³¹⁾

「璿源系譜紀略」 정조 7년본은 21권 8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線裝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책의 크기는 세로 35.4cm, 가로 24.3cm이다. 표지는 무늬가 없는 남색비단으로 五針紅絲로 장황하였고, 白紡絲紬로 된 題簽과 紅紡絲紬로 된 續이 있다. 冊紙는 草注紙를 사용하였으나 襟接紙와 空隔紙는 楮注紙를 사용하였다. 양자의 형태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각 권별 장수 비교와 책의 판식을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다.

4.1 各 卷別 張數

우선 정조 7년본은 각 권별 장수에서부터 정조 3년본에 비해 차이가 있다. 그것은 편집체제 상의 차이뿐만 아니라 내용의 추가와 삭제로 인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권수부분에는 정조 3년본에 없는 어제서문, 목록, 총서, 열성팔고조도가 새로 추가되고, 凡例가 새로 정리되었으며 선원선계와 선원세계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권수 부분은 정조 3년본이 총 58장이라면 정조 7년본은 총 83장으로 무려 30장이 늘어난 셈이다.

28) 「璿源系譜紀略」 규장각(奎8640)

29) 「璿源系譜紀略」 규장각(奎8625)

30) 「璿源系譜紀略」 장서각(K2-993, K2-994)

31) 장서각도서관국본총목록 을 보면 정조 3년에 간행된 도서로 K2-993과 K2-994가 있다. 이 책들을 실사해 보면 정조 3년과 영조 48년에 간행된 책들이 뒤섞여 한 질로 묶여져 있다.

또 권별 장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권12의 선조대왕편이다. 정조 3년본에서 87장이었던 것이 정조 7년본에서 95장으로 8장이 늘어났다. 이것은 서자 凝善君 熾, 아들 密春君 焮, 서자 西淸君 燿 등의 자손들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권13의 원종대왕편이 6장에서 8장으로, 권15의 효종대왕편이 3장에서 4장으로, 권16의 현종대왕편이 1장에서 2장으로 늘어난 것도 정조 3년본과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내용의 추가로 인해 張數가 증가한 경우도 있지만 내용이 삭제되어 줄어든 경우도 있다. 권9의 성종대왕편은 정조 3년본에서 86장이었던 것이 정조 7년본에서 85장으로 오히려 1장이 줄어들었다. 그것은 정조 3년본에 “庶子 順城 正 佶”에 관한 기록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는 것에 반해³²⁾ 정조 7년본에서는 이를 몽땅 삭제하였기 때문이다.

발문 또한 45장이었던 것이 정조 7년본에서 20장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대폭 줄어든 이유는 정조 3년본 까지 원래의 형태대로 누가적으로 첨부되었던 모든 발문이 정조 7년 본부터는 기존 발문 모두를 정서하여 새로 판각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들쭉날쭉하였던 기존의 발문 항자수는 11항 22자로 고정되었고, 글자체 또한 하나로 통일되었다. 이상 정조 3년본과 정조 7년본의 각 권별 장수를 <표 1>로써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2) “庶子 順城 正 佶”의 繼子인 珍山 副正 有齡에게는 아들 세 명이 있다. 靈安君 洙, 錦安守 濂, 義安守 淮이다. 그리고 큰아들 靈安君 洙에게는 네 명의 아들(泰漢, 觀漢, 賁漢, 復漢, 庶子 春漢)과 일곱 명의 딸(趙瑱, 李淑, 鄭昌胄, 朴夢錫, 金南麗, 朴世耆, 庶女 林般)이 있다. 둘째 아들인 錦安守 濂에게 세 명의 딸이, 셋째 아들인 義安守 淮에게 繼子인 觀漢이 있다. 이들 기록은 정조 7년본에 와서 모두 삭제되었다.

<표 1> 정조 3년본과 정조 7년본의 각 권별 장수

정조 3년본				정조 7년본				
册次	卷次	内 容	張 數	册次	卷次	内 容	張 數	
1책 (76장)	卷首	목록	1	1책 (83장)	卷首	이제서문	5	
		법례	18			목록	1	
		선원선계	2			총서	5	
		열성계서지도	1			법례	2	
		선원세계	36			선원선계	2	
	권1	태조대왕	18			열성계서지도	1	
2책 (85장)	권2	정종대왕	85	2책 (105장)		목록		2
						권1	태조대왕	18
					권2	정종대왕	85	
3책 (93장)	권3	태종대왕	93	3책 (95장)	목록		2	
					권3	태종대왕	93	
4책 (94장)	권4	세종대왕	66	4책 (96장)	목록		2	
	권5	문종대왕	1		권4	세종대왕	66	
	권6	세조대왕	27		권5	문종대왕	1	
5책 (89장)	권7	덕종대왕	2	5책 (90장)	권6	세조대왕	27	
	권8	예종대왕	1		목록		2	
	권9	성종대왕	86		권7	덕종대왕	2	
6책 (54장)	권10	중종대왕	53	6책 (58장)	권8	예종대왕	1	
	권11	명종대왕	1		권9	성종대왕	85	
7책 (87장)	권12	선조대왕	87	7책 (97장)	목록		2	
					권12	선조대왕	95	
8책 (70장)	권13	원종대왕	6	8책 (53장)	목록		4	
	권14	인조대왕	6		권13	원종대왕	8	
	권15	효종대왕	3		권14	인조대왕	6	
	권16	현종대왕	1		권15	효종대왕	4	
	권17	숙종대왕	2		권16	현종대왕	2	
	권18	영조대왕	3		권17	숙종대왕	2	
	권19	진종대왕	1		권18	영조대왕	3	
	권20	사도장헌세자	2		권19	진종대왕	1	
	권21	當宁朝	1		권20	장헌세자	2	
발문		45	권21	주상전하	1			
				발문		20		

4.2 책의 판식

책의 판식에 대해서는 반곽의 종류, 반곽의 크기, 계선, 항자수, 어미 등을 중점적으로 비교하였다. 반곽의 종류는 두 판본 모두 四周雙邊이다. 반곽의 크기는 異本の 식별과 더불어 내용상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책의 전체 크기보다 중요하다. 두 판본의 반곽의 크기를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곽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은 권수의 범례, 선원선계, 열성계서지도, 선원세계이고, 본문 중에서는 권12 선조대왕, 권16 현종대왕, 권18 영종대왕, 권19 진종대왕, 권20(사도)장헌세자³³⁾, 권21 當宁朝[정조], 발문 등이다.

凡例는 정조 7년에 재정리되어 목판에 새로 새긴 것으로 정조 3년본과 비교하면 반곽의 크기가 다르다. 정조 3년본의 범례 100개의 항목이 너무 번잡하여 정조 7년본에서 10개의 항목으로 고정시키면서 목판에 새로 새겨 편입하였기 때문이다. 璿源先系 또한 정서하여 목판에 새로 새긴 것이다. 글자체가 범례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범례를 대폭 수정하면서 같이 판각한 것으로 보인다. 列聖繼序之圖는 정조가 수록된 부분은 정조 3년본과 동일하지만 판본의 글자체는 양자가 차이를 나타낸다. 특히 판심제에서 정조 3년본은 “璿源先系”라고 되어 있지만 정조 7년본은 “繼序圖”라 표기하고 있어 두 판본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璿源世系는 張數에서 정조 3년 본보다 2장이 증가한 것은 大註뿐만 아니라 小註에서 추가와 수정, 삭제할 내용이 많아서 새로 판각하여 편입한 것이므로 반곽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본문 중 권12 선조대왕, 권16 현종대왕은 추가할 내용이 많아 장수를 늘리면서 해당 부분을 새로 판각하여 편입하였으므로 반곽에서 차이를 보인 것이다. 권18 영종대왕, 권19 진종대왕, 권20(사도)장헌세자, 권21 當宁朝[정조]는 장수에서는 변화가 없었지만 수정과 삭제부분이 있어 목판을 새로 새겨 편입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20 장헌세자에서 반곽의 차이를 보인 것은 정조 3년본의 “思悼莊獻世

33) 정조 7년본 권20의 권수제는 “莊獻世子”로 되어 있음.

<표 2> 정조 3년본과 정조 7년본의 반곽의 크기

卷次	內容	반곽의 크기(세로×가로cm)	
		정조 3년본	정조 7년본
卷首	어제서문	해당사항 없음	23,1×18,7
	목록	22,6×18,7	22,1×18,8
	총서	해당사항 없음	23,0×18,7
	법례	23,0×18,8	22,5×18,6
	선원선계	22,5×18,6	21,8×18,6
	열성계서지도	22,5×18,6	21,9×18,5
	선원세계	22,4×18,6	22,9×18,7
	열성팔고조도	해당사항 없음	22,7×18,8
권1	태조대왕	22,8×18,7	22,7×18,6
권2	정종대왕	22,9×18,8	22,9×18,8
권3	태종대왕	22,9×18,7	22,9×18,7
권4	세종대왕	22,9×18,7	22,9×18,7
권5	문종대왕	23,2×18,7	23,1×18,6
권6	세조대왕	23,0×18,7	23,0×18,7
권7	덕종대왕	23,2×18,7	23,1×18,7
권8	예종대왕	23,0×18,7	23,0×18,7
권9	성종대왕	23,1×18,7	23,1×18,7
권10	중종대왕	22,7×18,6	22,7×18,6
권11	명종대왕	23,2×18,6	23,1×18,6
권12	선조대왕	23,0×18,7	22,8×18,7
권13	원종대왕	22,6×18,7	22,6×18,7
권14	인조대왕	22,8×18,4	22,7×18,5
권15	효종대왕	23,3×18,7	23,2×18,6
권16	현종대왕	23,2×18,7	22,4×18,9
권17	숙종대왕	22,2×18,5	22,0×18,4
권18	영조대왕	22,5×18,5	23,2×18,6
권19	진종대왕	22,6×18,7	22,2×18,7
권20	(사도) 장헌세자	22,8×18,5	23,3×18,7
권21	當宁朝	22,5×18,4	22,8×18,9
발문		23,3×18,8	23,0×18,6

子”가 정조 7년본에서 “思悼”를 빼고 “莊獻世子”라 한 것과 정조 3년본에 수록된 혜경궁홍씨 관련부분을 정조 7년본에서 몽땅 삭제하는 과정에서 목판을 새로

새겨 편입한 것으로 보인다. 발문은 정조 7년 본부터는 기존 발문 모두를 정서하여 새로 판각한 것이기 때문에 반곽에서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상 반곽의 크기는 각 권별 장수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반곽의 크기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또한 내용 가운데 추가, 수정, 삭제가 있는 부분은 목판을 새로 새겨 편입한 것이므로 반곽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다음 계선은 橫譜를 6단으로 구분한 것과 범례, 선원선계, 선원세계, 발문에 계선이 있는 것은 양자가 동일하다. 항자수는 범례, 선원선계, 선원세계 부분에서는 11항 22자씩은 양자가 동일하지만 발문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정조 7년본은 11항 22자이지만 정조 3년본은 9항 15자이다. 이는 정조 7년에 와서 발문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어미는 양자가 내향3엽화문어미로 되어 있다.

5. 내용적 특징

이 장에서는 정조 7년본의 내용은 정조 3년본의 내용과 비교하여 정조 7년본에서 추가된 부분이나 수정된 부분, 그리고 삭제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기술순서는 정조 7년본의 권별 순서대로 진행하기로 한다.

1) 어제서문이 새로 추가되었다. 정조 7년(1783)에 정조가 친히 초본을 찬하여 도승지와 각신에게 서문을 교정하여 판각을 하도록 하였다.³⁴⁾ 이때 어제서문을 정서한 서사관은 규장각 제학으로 있던 兪彥鎬가 담당하였다. 어제서문의 끝에는 “予小子嗣服之七年癸卯(1783)孟春上元拜手謹序”이라 되어 있다.

2) 總敘가 새로 추가되었다. 종부시 제조인 鄭民始가 보락의 범례가 매번 수정될 때마다 사례 조목을 침묵하는 것이 매우 번거롭다고 하여 다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정조는 이전의 범례를 모두 정리하여 새로운

34) 『璿源譜略修正儀軌』(奎14087) 癸卯 1월 16일

범례와 총서를 만들게 하였다. 범례는 중요한 것만 취하되 列朝의 受敎와 國朝寶鑑 總序의 예에 따라 총서를 만들게 하였다. 차후 수정할 경우 사례를 범례에 침묵하지 말고 총서에 침묵하도록 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고 이 일을 원임대제학인 徐命膺에게 지어 올리도록 명하였다.³⁵⁾

새로 추가된 총서 내용 가운데 정조 3년 이후의 부분을 살펴보면³⁶⁾ 다음과 같다. 정조 6년 壬寅 秋9월에는 聖嗣誕降과 建號元子가 추재되었다. 그 이듬해 정조 7년 癸卯 春2월에는 元子와 御眞奉安의 殿名을 기재하고, 정조가 친히 서문을 지어 卷首에 수록하였다. 그리고 범례를 改撰하여 總敍의 체제를 확립하였다. 또 列朝의 탄강일 干支와 上號 즉위년월은 실록에서 다시 고찰하여 생략되거나 잘못된 것은 바로잡았고, 왕대비전 가상존호와 경모궁과 혜경궁을 大書한 것 등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3) 凡例가 다시 수정되었다. 정조 7년본에서는 정조 3년본의 범례 100개의 항목을 정리하여 10개의 항목으로 고정시켰다. 대신 차후 변동되는 모든 사항은 총서에 기재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범례 10개 항목은 璿源系譜紀略 이 증보되는 조선 말기까지 그대로 준용되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³⁷⁾

첫 번째, 편집체제는 先系·繼序·八高祖圖·子孫譜 순으로 한다.

두 번째, 先系篇의 1세는 묘지를 쓰지 않고, 2~6세에 碑位·墓地를 쓰지 않는 것은 문헌이 부족해서이다.

세 번째, 繼序圖 중 承統의 序는 兄弟繼序의 경우는 쌍행으로 써서 昭穆의 뜻을 밝힌다.

네 번째, 世系篇은 追崇 4대왕으로 부터 太祖大王 以下는 列聖徽號·御諱·御字를 쓴 뒤 列朝 事實의 대강을 쓴다.

다섯 번째, 誕降 宮殿 卽位 年月 등을 기재한다.

여섯 번째, 列朝 子孫은 先男 後女를 따라 大君·公主·王子·翁主 순으로

35) 「璿源譜略修正儀軌」 규장각(奎14087) 癸卯(1783) 1월 19일

36) 「璿源系譜紀略」 규장각(奎8640) 總敍

37) 「璿源系譜紀略」 규장각(奎8640) 凡例

신고 그 자손의 경우도 같이 한다.

일곱 번째, 이전에는 譜略이 간행될 때마다 별도로 八高祖圖를 繕寫·粧綴하여 선원각과 오대사고에 보관하였는데 계묘년(1783) 수정때 부터는 八高祖圖를 世系篇과 子孫譜 사이에 싣는다.

여덟 번째, 子孫譜는 庚辰(영조 36)의 예에 따라 태조 이하 列朝의 子孫譜는 모두 每朝 각 1편으로 수록하되 姓孫은 5대로 한하고 外孫은 宣祖 이상은 2대에, 宣祖 이하는 3대로 한하여 싣는다.

아홉 번째, 子孫譜의 每篇은 먼저 當朝 徽號를 쓰고 6층으로 나누어 쓰되 자손 모두 6대를 싣는다.

열 번째, 子孫譜에서 大君·王子는 모두 婚姻關·諡號 등을 쓰며 公主·翁主도 묘지를 쓰며 그 부마는 父名·官階·諡號를 쓰고 外孫은 다만 혼인관계·관직·시호를 써서 詳略 등으로 차등을 둔다.

4) 璿源先系 부분에서 내용을 새로 추가하거나 수정된 곳들이 군데군데 나타난다. 우선 추가된 내용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첫 번째, 영조와 관련된 사항으로 영조의 비인 貞聖王后 徐氏의 왕비 책봉년을 “辛丑”이라 표시되어 있는데 정조 7년본에서 “辛丑 景宗元年”이라 하여 小註를 첨가하고 있다. 그리고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 김씨의 가상존호를 정조 3년본에는 “繼妃 睿順 聖哲 莊僖 王大妃 殿下 金氏”라고 기재하였는데 정조 7년본에서는 “繼妃 睿順 聖哲 莊僖 惠徽 王大妃 殿下 金氏”로 추존하고 있다.³⁸⁾ 또 계비 정순왕후 김씨의 항목에 “二男 思悼莊獻世子 諱愍”이라 기재한 것을 7년본에서는 “二男 思悼綏德敦慶莊獻世子 諱愍 字允寬”이라 기재하고 이어 사도세자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大書로 추가하고 있다.³⁹⁾

38) 『璿源系譜紀略』 규장각(奎8640) 璿源先系 “七年癸卯 加上尊號惠徽”

39) 『璿源系譜紀略』 규장각(奎8640) 璿源先系 “사도세자는 乙卯(영조 11) 正月 21일 昌德宮 集福軒에서의 탄강하시고, 丙辰(영조 12)에 왕세자로 책봉되셨다. 壬戌(영조 18) 入學하시고, 癸亥(영조 19) 冠禮를 행하시며, 壬午(영조 38) 윤5월 21일 춘추 28세에 돌아가시다. 賜諡는 ‘思悼’이다. 정조 즉위년 8월 17일

두 번째, 혜경궁 홍씨에 관한 사항으로 “惠慶宮 孝康 慈禧 惠嬪 洪氏”라고 기재한 다음 혜경궁 홍씨에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大書로 추가하고 있다. 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혜경궁 홍씨는 영의정 洪鳳漢의 여식으로 乙卯(영조 11) 6월 18일 盤松坊 私第에서 탄강하시고, 甲子에 세자빈으로 책봉되시어 於義洞 本宮(孝宗 潛邸)에서 가례를 행하시다. 壬午에 ‘惠慶’으로 賜號하시고, 今上 즉위년 ‘惠慶’으로 進宮號하고, 정조 2년 戊戌 ‘孝康’으로 進號하였다.⁴⁰⁾ 정조 7년 계묘에 ‘慈禧’로 加上尊號하다. 2남 2녀를 생산하시다.”

세 번째, 진종과 정조에 관련된 사항으로 진종은 諱인 緯뿐만 아니라 字인 ‘聖敬’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정조의 기록 중 “정조가 丙申(정조 즉위년) 3월 10일 辛巳에 경희궁 승정문에서 즉위하였다”라는 사실만 기록하고 있는 정조 3년본에 비해 정조 7년본에는 정조의 즉위사실에 “御容 1본을 辛丑(정조 5년) 9월 昌慶宮 奎章閣에 봉안했다”라는 사실까지 보태어 수록하고 있다. 그리고 정조의 妃 효의왕후 金氏의 기록을 정조 3년본에는 “丙申(정조 즉위년)에 왕비로 進封했다”라는 사실까지만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정조 7년본에는 왕비로 進封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의빈 성씨의 소생인 “王元子 壬寅(정조 6년) 9월 초7일 昌德宮 謙華堂에서 탄강하다”라는 기록까지 보태어 수록하고 있다.

여기서 왕원자의 탄강사실에 관해 「璿源譜略修正儀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⁴¹⁾ “정조 6년(1782) 12월 22일 예조에서 ‘왕원자의 탄강당명과 연월일시를 모른다.’고 하자 승정원에서 ‘임인(1782) 9월 초7일 寅時에 昌德宮 謙華堂에서 탄생하시다’라고 하였다.” 승정원에서 왕원자의 탄강사실에 대해 말해준 것이 여기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莊獻’이라 上諱하고, 宮號를 ‘景慕’라 하였다. 정조 7년 ‘綏德敦慶’으로 추상존호하다. 슬하에 5남 3녀가 있다. 壬午(영조 38) 7월 23일 京畿道 楊洲 拜峯山 永祐園에 묻히다.”

40) 혜경궁이 정조 2년에 孝康으로 進號했다는 사실을 정조 3년본에는 진종을 이은 정조를 “嗣 主上殿下”라고 표기하면서 小註에 쌍행으로 “惠慶宮孝康惠嬪洪氏誕生”이라 기재하고 있다.

41) 「璿源譜略修正儀軌」 규장각(奎14087) 壬寅(1782) 12월 22일

다음은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 번째, 진종과 관련된 사항으로 정조 3년본에 “진종이 춘추 10세가 돌아가시자 甲申(영조 40) 2월 20일에 尙上 特命에 의해 嗣가 되었다”고 하는 부분을 정조 7년본에서는 “賜諡孝章”이라 수정하였다.

진종과 관련된 사항으로 정조 3년본에 “丙申(영조 52) 2월 1일 承統世子로 賜號하고 8월 12일 왕으로 추존하다”라는 부분이 정조 7년본에서 “丙申(영조 52) 2월 1일 承統世子로 賜號하고, 금상 즉위에 영조의 遺敎로 인해 왕으로 추존하다”라고 大書하고 그 아래 小註로 “八月十二日”이라고 기록을 수정하고 있다. 또 永陵 아래 小註로 “初墓號 孝章 追崇後 進號永陵 有表石”이라 기록된 부분이 7년본에서는 “追崇後 進號永陵 有表石”으로 수정되었다.

두 번째, 정조와 관련된 사항으로 정조 3년본에 진종의 대를 이은 것은 “嗣主上殿下[正祖]”라고 大書하고 그 아래 小註에 “惠慶宮 孝康 惠嬪洪氏誕生”이라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진종대왕과 혜경궁의 관계를 애매모호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으로 정조 7년본 수정작업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사안이었다.⁴²⁾ 이때 형조 판서 嚴璫은 수정을 강력하게 제기하였다. 이 사실은 「조선왕조실록」에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⁴³⁾ 형조 판서 嚴璫은 열성들의 世譜 중에 진종대왕을 계승한 분은 주상 전하인데, “惠慶宮誕生”으로 小註로 달았으니, 범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매우 미안한 일이라고 하고 지금 명종 대왕을 계승한 선조대왕의 전례에 따라 小註를 없애고 大註로 “思悼莊獻世子 제2남을 惠慶宮에서 탄생하였는데, 壬申年 아무 달 아무 날에 어떤 궁에서 탄생하였다.”라고 쓰면 事體가 정당하다고 하였다. 이에 정조는 「선원보략」의 일은 매우 가상하다고 하여 형조 판서 嚴璫에게 특별히 큰 사슴 가죽 한 벌을 하사하였다.

嚴璫이 수정을 제기하여 바로 잡은 내용은 정조 7년본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嗣主上殿下” 아래 小註인 “惠慶宮 孝康 惠嬪洪氏誕生”을 없애버리고 大註로 “主上殿下諱祘字亨運”이라 한 다음, 그 아래 大書로 “思悼 綏德敦慶 莊獻世子

42) 「璫源譜略修正儀軌」 규장각(奎14087) 壬寅(1782) 12월 23일

43) 「조선왕조실록」 정조 6년 12월 23일

第二男 惠慶宮 孝康 慈禧 惠嬪 洪氏 誕生 壬申(영조 28)九月二十二日己卯 誕降于昌慶宮之景春殿”이라 수정되었다.

5) 열성팔고조도가 새로 추가되었다. 정조는 圖와 譜는 모두 보첩이므로 열성팔고조도를 「국조어첩」과 「선원계보기략」에 부치게 하였다.⁴⁴⁾ 조선 전기에는 왕실의 가첩 형식이었던 어첩이 후기에는 가승적 요소가 가미되고, 열성팔고조도를 붙임으로서 한편으로는 宗統과 자신의 所自出을 밝히게 되었다. 팔고조도는 내외 사고조도를 합한 것으로 본인을 중심으로 내외 양계 조상의 세계를 밝혀 본인의 혈통 유래를 밝히므로 왕위를 계승한 왕에게는 필수적인 보첩이라 할 수 있다.

6) 권4 세종대왕 편에 龜城君 浚에 관한 復官사실이 정조 7년본에 수록되어 있다. 李浚은 세종의 넷째 아들인 臨瀛大君 瑈의 아들로 성종 원년에 어린 성종을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한다는 정인지 등의 탄핵으로 귀향을 갔다가 죽었는데 肅宗 丁卯(숙종 13) 6월에 復官되었다.⁴⁵⁾

이 復官사실이 정조 7년본에 수록되어 있다. 정조 3년본에는 “子 浚”아래 小註로 “初封 龜城君 領議政 罪死”라고만 기록되어 있다. 당시 실록에는 李浚을 功臣의 명부에서 이름을 削除하고 職牒을 회수하고, 경상도의 寧海에 安置하도록 하였다.⁴⁶⁾ 그러나 「璿源譜略修正儀軌」 12월 22일자 기록에 의하면⁴⁷⁾ 單子는 八道에서 모아 罪籍과 復官한 자는 각기 當朝의 처분에 따라 수정하여 기록하도록 하는 편집방침에 따라 여기에 李浚의 복관사실을 기재하게 된 것이다.

7) 권8 예종대왕 편 정조 3년본에 첫 장 첫머리에 “睿宗大王”이라고만 기재하고 예종대왕을 계승한 왕을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조 7년본은 “睿宗大王 嗣成宗大王” 라고 하여 예종대왕을 이은 것은 성종대왕인 것으로 수정하였다.

44) 「일성록」 정조 7년 2월 24일

45) 「조선왕조실록」 숙종 13년 6월 5일

46) 「조선왕조실록」 성종 1년 1월 14일

47) 「璿源譜略修正儀軌」 규장각(奎14087) 壬寅(1783) 12월 22일

이에 대해 실록의 기사는 嚴璫이 「璿源系譜紀略」에 덕종의 御牒에 사용된 명칭에 대해 “기존의 정조 3년본은 덕종을 성종이 계승한 것으로 쓰고, 예종의 밑에 성종이 계승한 것을 쓰지 않은 채 仁城大君과 齊安大君만 기록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고 지금 편찬 시에 바로잡아야 한다.”고⁴⁸⁾ 하였다. 嚴璫의 이러한 주장은 정조 7년본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8) 권9 성종대왕 편 정조 3년본에 “庶子 順城正 佶”의 자손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⁴⁹⁾ 그의 양아들인 “繼子 珍山副正 有齡”의 小註에는 “有齡의 생부는 河原君 鎰이고 羅晦吉의 여식을 아내로 맞이하다”라는 기록과 함께 10편 45장을 보라는 참조표시가 있다. 그리고 10편 45장인 권10 중종대왕편을 보면 “庶子 珍山副正 有齡”아래 小註로 “出繼 順城正吉後”라 한 다음 그 자손에 대한 기재 사항을 몽땅 생략하고 대신 9편 29장을 보라는 참조표시가 있다.

이러한 사실을 정조 7년본 권9 성종대왕편에서도 살펴보면 “庶子 順城正 佶”은 본인만 수록되고 그의 양자인 “繼子 珍山副正 有齡”의 자손에 대한 기록은 몽땅 삭제되었다. 그리고 권 10 중종대왕편에 “庶子 珍山副正 有齡”의 자손에 관한 기재사항이 정조 3년 본처럼 자세하나 정조 3년본에서 수록되지 않았던 有齡의 사위인 邊世용과 權황이 추가로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義安守 淮의 繼子 觀漢의 기록뿐만 아니라 서자 興漢과 서녀 李松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음을 아울러 확인할 수 있다. 李有齡(1584~1643)은 河原君 鎰의 아들로 태어나 順城正 佶에게 양자를 갔다. 중의대부 진산군 겸 오위도총부 부총관의 봉작을 받고 향년 60세로 별세했다.

9) 권12 선조대왕 편은 어느 편보다 변동사항이 많이 나타난다. 추가, 수정, 삭제 등이 골고루 나타나는데 우선 추가된 부분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林原君 杓의 사위인 金聖集이 정조 3년본에 아버지 道濟의 관직이

48) 「조선왕조실록」 정조 7년 2월 19일

49) 註 32) 참조.

郡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에 반해 7년본에는 金聖集이 영의정으로 증직되고 아버지 道濟는 左贊成으로 증직된 사실까지 포함하여 수록되었다.

두 번째, 錦南君 棟의 庶子인 “凝善副守 燦”의 자손이 정조 3년본에는 누락되어 있지만 7년본에는 그의 아들 厚性, 厚墩, 서자 厚陞, 딸 1명의 기록이 추가되어 있다. 단자를 수합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던 것을 챙겨서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서자 西溪君 燾에 관한 기록에서 정조 3년본에는 燾의 아들 命埜, 命峽, 딸 2명이 있다고 하였으나 정조 7년본에는 2남 8녀로 기재되어 있다. 3년본과 비교하면 딸 6명이 늘어난 셈이다. 정조 7년본에서는 누락된 딸 6명을 챙겨서 수록하고 있다.

다음은 수정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海溪君 燾에 관한 기록에서 정조 3년본에 海溪君 초에게는 1남 2녀가 있다고 수록하고 있다. 1남은 繼子로 이름은 厚宗(生父 敬德)이다. 이 부분을 정조 7년본에서는 海溪君 초의 자녀는 2남 3녀로 수록되어 있고, 계자인 厚宗이는 厚五로 바뀌었다. 또 厚五의 생부는 西淸君 燿이라 되어 있다. 그리고 서자 厚塾이와 서녀 1명이 추가되어 있다. 계자가 厚五로 바뀐 것은 厚宗이 과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두 번째, 密安君 悌의 기록에서 悌의 계자 顯埜(生父 敬緝)가 7년본에는 顯圭(生父 夢說)로 바뀌어 있다.

세 번째, 順悌君 烜의 둘째아들의 기록에서 정조 3년본에는 둘째아들의 이름이 厚璧인데 7년본에는 厚墩으로 수정되었다.

네 번째, 安川君 燿의 기록에서 정조 3년본에 세 아들인 厚生, 厚重, 厚璽만 수록되었는데 비해 7년본에 와서는 넷째 아들 厚望이와 딸 1명을 더 수록하고 있다. 셋째 아들인 厚璽은 7년본에서 厚璽으로 수정하였다.

다섯 번째, 庶子 坡陵君 穆의 기록에서 坡陵君은 1남 5녀를 두었는데 정조 3년본에는 坡陵君의 아들 厚峽이 정실 소생으로 맨 먼저 기재되었지만 7년본에 와서 厚峽이 庶子로 수정이 되어 맨 뒤에 기재되었다.

여섯 번째, 정조 3년본에 安南君 焜이 정조 7년본에서 安春君 焜으로 수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삭제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庶子 西淸君 焜에 관한 기록에서 정조 3년본에 卞延琬의 딸과 혼인하여 아들 命壕 하나만을 낳았고, 정조 7년본에서는 趙奎燭의 딸과도 혼인하여 厚中, 厚五, 厚豐, 厚信의 네 아들과 두 명의 딸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정조 3년본에 수록된 아들 命壕의 존재는 정조 7년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정조 7년본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錦陽正 樑의 아들 密寧副守 焜의 기록에서 정조 3년본에 焜에게는 아들이 없어 密春君 焜의 아들인 厚堦를 양자로 들이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정조 7년본에는 이러한 사실을 삭제해 버리고 厚堦를 密春君 焜의 庶子로 기록하고 있다. 정조 7년본에 와서 양자인 厚堦이 庶子로 바뀐 것이다.

10) 권13 원종대왕 편 樂林君 李埏의 기사에서 정조 3년본은 樂林君 李埏에게 鎮厚와 鎮玉 두 아들이 있다고만 하였는데 정조 7년본에는 李埏이 樂林君이란 호칭은 삭제되고 “처음에 樂林副守로 제수받았으나 후에 冪으로 승차하였다가 坐適되다”라는 기록이 침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의 아들 鎮厚는 “杖斃”하고 鎮寬이 “坐適”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정조 3년본에 鎮玉이란 아들이 7년본에는 鎮寬으로 수정되었는데 진관의 또 다른 이름이 진옥이었는지 아니면 誤記인지는 자세하지 않다. 그러나 실록에 “樂林君 李埏의 아들 李鎮厚는 역적으로 몰려 杖을 맞다가 곧바로 죽었고,⁵⁰⁾ 그의 아버지 李埏과 그의 아우 李鎮寬이 같이 연루되어 좌적되다”라는 기사가 있어 실록의 기록이 정확하다면 정조 3년본의 鎮玉은 誤記이다.

11) 권18 영종대왕 편 첫 페이지에서 “英宗大王 嗣眞宗大王”이 정조 7년본에서 “英宗大王 嗣眞宗大王 序居第一”로 되어 있고 이어 정조 3년본에 “男思悼莊

50) 「조선왕조실록」 정조3년 4월 23일, 5월 2일

獻世子諱愼”이 정조 7년본에는 “男莊獻世子”라고 되어 있다.

12) 권20 장헌세자 편 첫 페이지에서 정조 3년본에 “思悼莊獻世子”가 정조 7년본에는 “思悼”가 삭제되고 그냥 “莊獻世子”라고 하였다. 그리고 정조 3년본에 수록된 혜경궁홍씨 관련부분을 정조 7년본에서 몽땅 삭제하였다.

13) 권21 當宁朝[正祖] 편 첫 페이지에서 정조 3년본에 “當宁朝” 아래 小註로 淑昌宮仁淑元賓洪氏에 대한 기록을 수록하였지만 정조 7년본에는 “主上殿下嗣元子”라 하여 小註부분을 몽땅 삭제하였다.

14) 발문은 숙종 5년의 김석주 발문부터 오도일, 송상기, 이관명, 조태억, 이의현, 윤순, 박사수, 서명응(1771년), 이복원, 이휘지, 서명선, 서명응(1779년), 이복원까지 총 14명이 쓴 발문이 있다. 정조 7년 본에서는 기존 발문을 모두 모아 서사관이 새로 淨書하여 목판에 부쳐 새긴 것이다.

따라서 정조 3년본과 비교하면 반곽의 차이뿐만 아니라 글자체까지 완전히 다름을 실사할 수 있다. 정조 3년본은 최초의 발문작성자인 김석주를 비롯하여 서명응까지 모두 13명이 쓴 발문이 있다. 13명이 작성한 발문은 『璿源系譜紀略』이 수정·보완될 때마다 누가적으로 편입되었다.

6.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璿源系譜紀略」 정조 7년본은 정조 3년 이전본에 비해 편집체재 상 새로운 변화가 보여준다. 御製序文, 凡例, 總敍, 凡例, 璿源先系, 列聖繼序之圖, 璿源世系, 八高祖圖, 本文, 跋文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순서는 차후 典範이 되어 각 왕대에 걸쳐 종교와 보간을 거듭하는 가운데에서도 1933년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典範이 된 정조 7년본을 그 이전본인 정조

3년본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형태적 특징과 내용적 특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각 권의 張數를 세어본 결과 권수부분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권수부분은 정조 7년에 와서야 어제서문, 목록, 총서, 열성팔고조도가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범례는 재정리되어 오히려 대폭 줄었음이 특징이다. 책의 판식에서 각 권의 장수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반곽의 크기에서도 역시 차이가 있었고 이러한 차이는 해당 부분의 추가, 수정, 삭제로 인해 목판을 새로 판각하여 편입하였기 때문이다.

내용적 특징으로는 장헌세자, 진종, 혜경궁 홍씨에 관한 기록이 눈에 띈다. 昌德宮 集福軒에서의 탄강기록, 왕세자 책봉기록, 入學 기록, 冠禮기록, 춘추 28세로 돌아가시기까지의 기록이 정조 7년본에 자세하다. 그리고 권20에서 “思悼 莊獻世子”편이 정조 7년본에는 “思悼”를 빼버리고 “莊獻世子”로 기록하고 있는 점 그리고 진종을 승통세자로 賜號하고 정조 즉위에 영조의 遺敎로 왕으로 추존한 점이 특징이다. 혜경궁에 관한 기록도 정조 7년본에서 새로 추가되었다. “惠慶宮 孝康 慈禧 惠嬪 洪氏”라는 기록을 추가시키고 진종의 대를 이은 것은 정조라고 하고, 그 아래 小註에 정조를 혜경궁 홍씨 소생이라고 기록한 대목에서 진종대 왕과 혜경궁 홍씨의 관계가 매우 애매모호하였는데 이를 정조 7년본에서는 주요한 이슈로 삼아 기록을 바로 잡았음이 그 특징이다.

<참고문헌>

- 「璿源系譜紀略 규장각(奎8625)
- 「璿源系譜紀略 규장각(奎8640)
- 「璿源系譜紀略 장서각(K2-980)
- 「璿源系譜紀略 장서각(K2-993)
- 「璿源系譜紀略 장서각(K2-994)
- 「璿源譜略 장서각(K2-1049)

- 「璿源譜略開刊儀軌 규장각(奎14014)
- 「璿源譜略開刊儀軌 장서각(K2-3837)
- 「璿源譜略校正廳開刊儀軌」 규장각(奎14086)
- 「璿源譜略修正儀軌 규장각(奎14087)
- 신명호. 조선왕실의 의례와 생활 . 서울: 돌베개, 2002.
- 안미경. “藏書閣 所藏 璿源系譜紀略 의 書誌의인 研究.” 藏書閣 . 제17집(2007. 6). 5-38.
- 尹仁鉉. “범례와 발문을 통한 璿源系譜紀略 의 판본 선별고 - 숙종5년본에서 정조3년본까지를 대상으로-.” 書誌學研究, 제23집(2002. 6). 209-234.
- 尹仁鉉. “璿源系譜紀略 開刊過程과 始刊本 分析.” 書誌學研究 . 제14집(1997. 12). 363-410.
- 尹仁鉉. “璿源系譜紀略 肅宗26本 刊行過程考.” 書誌學研究 . 제22집(2001. 12). 405-436.
- 尹仁鉉. “璿源系譜紀略 肅宗46本 刊行過程考,” 書誌學研究 , 제20집(2000. 12). 123-155.
- 尹仁鉉. “璿源系譜紀略 의 板本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92.
- 尹仁鉉. “英祖朝 4册本 璿源系譜紀略 板本考-판본선별을 중심으로-.” 書誌學研究, 제19집(2000. 6). 158-178.
- 鄭在勳. “朝鮮初期 王室婚과 王室勢力의 形成,” 韓國史研究 . 제95집(1996). 59-108.
- 鄭在勳. “璿源錄」의 編纂과 그 內容.” 「釜山史學」. 제30집(1996). 1-34.
- 宗簿寺. 朝鮮王朝璿源錄 . 서울: 민昌文化社(영인), 1992.
- 천혜봉. 한국서지학 . 서울: 민음사, 2006.
- 洪順敏. “조선후기 왕실 구성과 선원록: 1681년(숙종 7) 선원계보기략」의 편찬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제11집(1990. 12). 169-202
- 洪順敏. “조선후기 璿源系譜紀略」改刊의 추이.” 奎章閣, 제13집(1990. 12).
- 黃晶淵. “朗善君 李俔의 書畫 收藏과 編纂.” 「藏書閣」. 제9집(2003. 6). 5-44.

